

Elaine Phillips 박사, 에스더, 강의 1

© 2024 Elaine Phillip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에스더서에 관해 Dr. Elaine Phillips가 발표하는 네 번의 강의 시리즈입니다. 코넬 대학교에서 사회 심리학 학사 학위를, 성서 신학 대학원에서 MDiv를 취득한 Elaine Phillips는 남편 Perry와 함께 이스라엘에서 3년 동안 공부하고 가르쳤습니다. Elaine은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필라델피아의 Dropsy College에서 히브리어 및 동족 학습을 위한 랍비 문학을 전공했으며 1993년부터 Gordon College에서 성서 연구를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최근 Tremper Longman과 David Garland가 편집한 Expositor's Bible Commentary에 포함된 책 한 권 분량의 에스더 주석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강의로, 이 책의 신학적, 윤리적 도전에 대한 개요와 소개를 제공하고 Elaine Phillips 박사가 발표한 에스더의 문학적 장르와 구조에 대한 소개로 마무리합니다.

에스더 두루마리는 맛있는 아이러니와 반전으로 가득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어로, 아하세베로시는 막강한 페르시아 제국의 과시적이고 강력한 왕입니다. 그는 그의 아내 와스디가 왕의 잔치에 참석하는 남자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기를 거부하자 의지 싸움에서 패했습니다. 이 모욕에 대한 분노로 결단력을 잃게 된 그는 그의 최고 현명한 조언자로부터 이 국내 문제를 국가 위기로 확대시켜 와스디가 다시는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도록 법령을 발표하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그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더욱이, 그의 최고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정을 되찾았을 때 그의 법령을 취소할 수 없었으며, 이번에는 그의 젊은 신하들의 지혜에 의존하여 그의 개인적인 삶을 재정비하고 그를 위해 새로운 여왕을 찾아주었습니다. 에스더 사람. 이야기가 계속 전개됨에 따라 크세르크세스는 놀랍게도 이 여왕의 유대인 신분을 망각하고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개가 왕의 생명에 대한 암살 시도를

좌절시켰을 때 그의 충성심에 대해 5년 동안 부주의했으며 그 불길한 의미에 눈이 멀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의 인장 반지로 봉인된 하나의 법령으로 자신을 높이고 전체 민족을 파괴하려는 하만의 책략입니다. 하만은 사실상 왕 다음가는 정치적 고위직 임명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개가 명령대로 자기 앞에 절하지 아니할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상처받은 자존심으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개의 유대인 존재와 정체성에 대한 언급은 하만에게 모르드개 백성 전체에 대한 진정한 악의적인 보복의 가능성을 제공했습니다. 하만은 유대인들을 학살할 날을 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이를 마련했고, 그 후 유난히 교묘한 방법으로 왕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실제로는 하만의 칙령이었던 왕의 칙령이 공포되자 모르드개는 에스더 왕비에게 목숨을 걸고 개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흘 동안 금식한 후 에스더는 경계를 넘어 왕궁으로 들어가 왕의 호의를 얻었고, 자신과 하만만 참석할 수 있는 사적인 잔치에 초대하여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하만은 자신의 적 모르드개를 만날 때까지 기분 좋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모르드개는 자신 앞에서 일어나기를 거부하자 또 다른 분노를 느꼈고, 모르드개를 공개 교수형에 처하자는 아내의 제안으로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러던 중, 왕은 우연히 불면증에 걸렸고, 해독제는 궁중 연대기에 나오는 졸음 낭독이었습니다. 왕은 자신이 모르드개에게 상을 주지 않은 것을 알고 궁정 예의에 어긋난 것을 발견하고 일을 바로잡기로 결심하고 하만에게 물었습니다. 하만은 바로 그 순간에 모르드개를 목매다는 허락을 받기 위해 침실 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왕이 존경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 행했습니다. 자존심이 아주 좋았던 하만은 왕이 자신을 위해 이것을 의도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정교한 공개 전시를 묘사했으며, 그 후 그는 모르드개를 대신하여 행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굴욕을 느낀 그는 에스더가 그와 왕을 위해 베푼 두 번째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제 시간에 맞춰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 두 번의 잔치는 왕과 하만 모두를 충분히 누그러뜨렸기 때문에 그녀가 유대인 신분을 드러내는 놀라운 사실과 하만의

배반은 각각 왕과 하만을 격분시키고 겁에 질리게 했습니다. 불안과 분노가 난무하는 장면에서 하만의 계략은 눈앞에서 폭발했다.

자비를 구하는 그의 호소는 무시되었고 그는 모르드개를 달기 위해 장대에 매달렸습니다. 이러한 반전 속에서 에스더의 성격은 처음에는 사촌을 순종적으로 비난하다가 놀랍도록 용감한 권위자로 발전합니다. 그녀와 모르드개는 함께 유대인들이 그들의 인명과 재산에 대한 제국 전체의 조직적인 공격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왕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하만의 치명적인 법령에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보답으로 부림이라는 기념 행사가 제정되었고 두루마리는 평화와 안정이 지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줄거리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독자는 이 텍스트에 담긴 복잡성과 풍부함을 쉽게 간과합니다.

이 이야기는 페르시아 궁정 전체를 조롱하는 동시에 신랄하게 냉소적이며, 한 사람의 상처받은 자존심과 증오가 유대 민족 전체에 잠재적인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끔찍할 정도로 불길합니다. 이 텍스트는 인종, 성별, 폭력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하고 당혹스러운 질문을 제기하며 전통적인 정통성을 계승합니다. 또한 매 순간 모호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와스디,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모르드개, 에스더의 선택과 활동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완전히 사악한 하만을 제외하고, 이야기의 모든 주요 인물은 수세기에 걸친 평론가들로부터 놀라울 정도로 광범위한 성격 평가를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광대한 페르시아 제국부터 디아스포라 유대인까지 대표되는 공동체는 칭찬과 경멸을 모두 불러일으켰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자신도 조사를 받습니다.

인간 사건의 무대에서 그분이 명백히 부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가 조사를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신학적, 도덕적 도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랍비 전통에서 에스더서는 신명기 31장 18절과의 어휘적 연관성을 바탕으로 신이 숨긴 책으로 읽혀졌는데, 그 중 일부는 '나는

확실히 숨길 것이다', '동요', 내 얼굴을 가리킨다. 에스더와의 연관성은 분명합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부재와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선택은 이 책의 신학적 중요성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책이 주로 문화적 타협과 그에 따른 과도한 민족주의를 반영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책을 세속적이라는 꼬리표를 붙인 학자들이 있는데, 둘 다 모범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없고, 분명한 기도와 경건이 부족하며, 에스더의 의심스러운 행동은 모두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확실히 비종교적인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대표한다는 증거로 간주됩니다.

언약을 지키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고, 디아스포라에 남아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본문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있습니다.

주로 계몽주의 이후의 사상은 세속적 민족주의와 종교적 의도 사이에 이분법을 쉽게 확립했지만, 고대 후기에는 이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EP 샌더스는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공동체를 존재하게 만든 신에 대한 충성심과 분리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룹의 정체성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무신론은 고대 세계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사실상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 신성한 영역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서사에는 신이 훨씬 더 미묘한 방식으로 현존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에스더서뿐만 아니라 요셉과 룻의 이야기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나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활동에 대한 암시가 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는 드라마 속 인물과 작가 모두 자신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식별했음을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암시가 있습니다.

4장 14절에서 모르드개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을 도와달라는 호소가 가장 분명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모르드개의 유대인성은 하만의 아내가 더 크고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6장 13절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특히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개입을 호소합니다. 셋째, 흔히 우연의 일치라고 불리는 일련의 모든 것들은 누적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왕의 불면증인데, 서사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연의 일치가 등장한다.

마지막으로, 인간 기대의 예상치 못한 반전을 중심으로 구축된 포괄적인 구조는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통제와 궁극적인 정의에 대한 희망을 입증합니다. 이 원칙은 9장 1절에서 유대인 대적들의 사악한 계획과 관련하여 그것이 뒤집혔다는 표현으로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중요한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적 조정과 주인공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고 가정한다면, 서술자는 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정하고 이러한 활동을 그에게 돌리지 않았습니까? 중세 유대인 주석가들은 페르시아 당국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한 저자의 우려에서부터 부림절 축제의 특징인 경박함, 특히 과도한 음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은 최근 논평에서 계속해서 표면화되었지만 두 제안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부림절과 관련된 과도한 음주는 서기 4세기에만 발전했는데, 그곳도 바벨론이었으므로 그곳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이 분명하다. 더 실질적으로, 이야기 속의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모호함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광범위한 적용을 허용합니다.

수많은 섭리적 우연의 일치는 책임 있고 신실한 인간의 선택과 행동을 요구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반복되는 신성한 침묵에 직면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에스더와 모르드개처럼 삶의 실제 모호함 속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한 대안 중에서 선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의와 고통을 해결하시고 그분의 지혜와 때에 따라 그분의 백성을 보존하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겪은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 찬 수세기 동안 본문이 읽고 또 읽혀지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책임 있는 행동 문제를 살펴보면,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모두 심각한 도덕적 타락을 겪었으며 그 결과 조용히 하나님께서 승인하지 않으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르드개가 포로들과 함께 돌아오지 않고 법정에서 어느 정도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수산에 살고 있다는 것은 그의 불순종의 증거로 가정됩니다.

아마도 여기에 역사를 조금 요약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기원 전 586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 황폐화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파괴되었고 인구는 대거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땅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바빌로니아 언어, 문학, 문화에 대한 재교육으로 인해 그들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이 훼손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1장과 지배적인 문화의 매혹적인 매력을 통해 이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빌론의 우월성은 상대적으로 짧았습니다.

바빌로니아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으로 대체되었고, 키루스 대왕은 539년에 칙령을 발표하여 충실한 남은 자들을 유다로 돌려보낸다는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라 그들이 실제로 돌아올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오직 남은 자만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대다수는 그렇지 않았으며 다양한 디아스포라 상황에 편안하게 정착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심각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적 사역에 응답했고 마침내 다리우스 통치 기간인 516년에 두 번째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적에 있어 중요한 것은 크세르크세스가 두 번째 성전이 완공된 지 약 한 세대 후인 486년에 다리우스로부터 페르시아 영역을 인수했다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곳곳에 유대인 공동체가 세워졌으나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이것은 바로 그 땅의 맥락에서 의미있게 정의된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 백성에 대한 불순종과 충성심의 부족으로 해석되는 것이 정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더 넓은 성경적 맥락에서 유지하려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각자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수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그러한 사건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위기 이후 약 한 세대 후에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친유대 정서의 물결과 모르드개의 입장이 정한 패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각자 유대로 돌아가기 전에 페르시아 궁정에서 맡은 중요한 역할을 위한 길을 열었을 것입니다. 모르드개에 대한 또 다른 비난은 아마도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에스더를 페르시아 궁정인 죄악의 굴에 보내려는 의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에스더가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을 금했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유산의 영적인 측면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배적인 문화에 동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냄새를 풍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과는 반대로, 본문의 아주 초반부에는 그가 그다지 냉담하지 않았다는 징후가 있습니다. 에스더의 부모가 없을 때 그는 에스더를 돌보고 자신의 딸로 입양했습니다.

에스더에 대한 묘사는 검거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녀의 남다른 아름다움을 강조한다. 끌려가는 것은 불가피했다. 그녀가 하렘에 갇힌 후, 그녀에 대한 모르드개의 관심은 그가 매일 궁전 밖을 걷는 모습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본문과 함께 이들 각각을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에스더에 대한 비판도 여러 분기에 걸쳐 증가했습니다.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볼 때, 그녀는 왕의 소유물이 되는 것을 용감하게 거부하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왕관을 전달한 와스디와는 대조적으로 심각하게 부족한 역할 모델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에스더는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행했고, 한 남자에 의해 자신이 통제되도록 허용했으며, 강력한 여왕으로서 교활한 여성 간계를 행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독자들은 해당 텍스트를 불쾌할 정도로 파괴적인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에스더는 하렘에 들어가는 것과 이교적이고 음탕한 왕의 성욕을 만족시키는 것이 유일한 초점이었던 대회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 거리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 초기부터 가나안 종족과의 통혼은 금지되었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7장에서 우상 숭배의 유혹에 대해 이 사실을 봅니다. 에스라 9장과 느헤미야 13장에 기록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 활동 중 엄중한 조치 뒤에도 같은 동기가 있었다.

당시 외국인 아내들은 쫓겨났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크세르크세스와 에스더 시대보다 한 세대 정도 뒤인 기원전 5세기 중반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요인은 에스더가 다시 왕의 후궁을 채우기 위한 젊은 여자들을 모으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가장 분명한 해석은 에스더가 첫날 밤에 다른 모든 후보자들보다 기억에 남는 성적 파트너임을 실제로 증명했다는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 명 이상의 학자는 왕이 특히 그녀에게 흥미를 느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변덕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Judith Rosenheim은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주요 지지자입니다. 결국 Xerxes는 그러한 즐거움을 위해 완전한 하렘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다소 더 호의적인 표현에서는 에스더의 성격이 초기 수동성에서 솔직한 용기로 변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녀는 처음부터 왕실과 궁정의 더 넓은 조직 내에서 배우었습니다. 그녀는 핵심 인물들의 호의를 얻었습니다.

한 가지 호의는 일반적으로 발견된 호의보다 더 역동적인 히브리어 관용구이며, 이 본문 전체에서 에스더와 일관되게 사용됩니다. 2장의 끝에서 모르드개가 암살 음모를 폭로했을 때 그녀는 모르드개와 왕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공공 분야로 진출해야 할 때가 왔을 때 에스더는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전체 운영에 대해 매우 전략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유대인들과 자신의 처녀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왕과 하만과 대결하여 유대인들을 위한 자위 조치를 마련하고 마침내 축제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본문의 목적에 더 예리하게 초점을 맞추도록 이끈다.

이 텍스트에는 상호 연관된 두 가지 주요 의도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는 제국 전역의 유대인들이 멸망으로부터 구출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연례 행사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읽는 것은 그 기념의 필수적인 부분이 될 것입니다.

9장은 이틀 간의 축제를 확고히 확립한다. 유대인의 주요 축제와는 달리 부림절은 시내산에서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강조가 특히 중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들은 1장부터 8장까지의 구출 이야기와 9장의 축제 준수 사이의 연관성을 부차적이고 조작된 것으로 봅니다.

19세기 학자들은 왜 유대인의 구원 이야기가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기원인지에 관계없이 이미 존재했던 이교 축제라고 가정했던 것과 연결되는 이유를 만족스럽게 설명하려는 창의적인 가설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상 축제의 성격은 제안된 기원점만큼 잠정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해를 제안했고, 다른 사람들은 봄 축제를 제안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죽은 자를 기리는 잔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앗시리아와 바빌로니아 문헌 모두에서 추적할 수 있는 아카드어 용어 푸루(Puru) 또는 푸림(Purim)이 많은 의미를 가졌고 부차적으로 운명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즉, 역사의 결과를 결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는 관행은 오랜 전통이었다. Judith Rosenheim은 페르시아 문화에서 Pur 또는 롯을 주조한 결과가 이교 신의 미리 결정된 결정의 증거로 인식된다는 점을 관찰했습니다.

따라서 로트는 무작위 기회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만은 자신의 신들과 상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더 넓은 사회-종교적 맥락을 고려할 때, 이 이야기가 있는 그대로 전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명백히 침묵하고 따라서 예측할 수 없지만 주권적으로 푸르를 캐스팅하여 정한 날짜를 뒤집을 수 있으며 특히 다음과 관련하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구원의 전통.

그 사건을 기념하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서 9장 28절에 따라 실제로 기억되고 행해질 수 있도록 이야기의 암송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의 이야기와 절기에 관한 법령을 하나로 묶는 것이 바로 이 명령이다. 세대에서 세대로 그 경험을 다시 포착하려면 말하고 들어야 했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에 대한 기억을 지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매년 읽어야 했습니다. 중세 유대인 평론가들은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말라기서로 대표되는 악의 세력이 마침내 멸망될 마지막 구원을 미리 맛보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내러티브는 우주적인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 세기를 통해 푸림 스피엘(Purim spiels)로 알려진 푸림 연극은 이러한 기념 측면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러티브는 축제를 인증했을 뿐만 아니라, 이는 디아스포라의 삶에만 초점을 맞춘 유일한 성경 본문입니다.

본토로의 귀환을 강조하는 성경의 나머지 포로 이후 문헌과는 달리, 이 이야기는 분산 상태에 남아 있기로 한 선택과 관련된 복잡성과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취약성을 제시합니다. 한편으로, 이 이야기의 끝부분은 독자들에게 완전히 통합된 모르드개를 제시하며, 이교 궁정과 관계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의 삶 사이에 긴장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그와 에스더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기존 시스템의 메커니즘을 창의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교 영역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에는 오해가 없습니다. 내러티브의 우스꽝스러운 어조는 자존심과 이기심이 매우 빠르게 살인적인 증오로 변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충격을 더욱 강화할 뿐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역사를 통틀어 동부와 서부 맥락 모두에서 조류는 끔찍한 빈도로 그들에게 등을 돌렸고 정당방위 시도 자체는 종종 불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보호를 목적으로 한 광범위한 문화적 동화는 종종 재앙적인 규모의 반발을 가져왔고, 지난 2세기의 서유럽 역사는 가장 최근의 냉철한 기억을 상기시켜 줍니다. 요컨대 에스더서의 본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한

주석가가 말했듯이, 유대인의 행동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만큼 필요하다는 분산을 위한 신학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앞으로 수세기 동안 흩어져 있는 공동체에서 유대인들이 위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카논의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더는 모든 독자들, 즉 우리에게 이 시대를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그 시대가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떠할지 생각해 보라고 도전합니다.

본문의 메시지 중 하나는 우리의 신앙 전통과 크게 상충될 수 있는 시스템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목적에서 역사적, 문학적 관심으로 옮겨가면서 우리는 이미 바빌로니아와 페르시아 제국의 전환에 대한 일반적인 일정 과 그 맥락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위치를 언급했습니다. Xerxes 또는 Ahasuerus의 캐릭터를 조금만 더 발전시켜 봅시다.

성경 외 주요 출처는 헤로도토스이며, 크세노폰과 크니도스의 크테시아스의 작품에서 몇 가지 추가 세부 사항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밝혀주는 페르시아의 비문과 고고학적 증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이 완성된 다리우스가 죽기 전에 크세르크세스는 왕세자이자 바빌론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 486년부터 465년까지 통치했으며 군사 활동으로 인해 먼저 이집트로 갔다가 바빌론에서 반란을 진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그는 다음 4년을 보냈는데, 이는 아테네를 황폐화시켰지만 크세르크세스의 궁극적인 패배로 끝난 모험인 그리스 공격을 위해 막대한 병력을 모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크세르크세스는 잔인하고 음탕한 독재자였으며, 이는 이야기와 잘 어울리는 특징입니다.

크세르크세스가 암살되자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가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설명한 페르시아의 상황 외에도 에스더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언약 역사의 메아리를 울려 퍼뜨립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심할 바 없이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람들 사이의 오랜 적대감입니다.

2장에서 우리는 모르드개가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 그의 조상 중 하나가 기스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독자는 그것을 기스의 아버지인 사울 왕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반면에 대적 하만은 또한 아각이라는 존경할 만한 가문과 명시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민한 청중은 사울 왕이 다름 아닌 아각이 왕이었던 아말렉 사람들을 멸절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사울 왕에게 명령했을 때인 이스라엘의 군주제 초기에 아직 끝나지 않은 중요한 일이 있음을 인식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변덕스러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앞부분에서 설명한 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말렉 사람들의 기억을 지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의 성취였습니다. 그 공격의 잔혹성은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에서 분명해집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뒤에 약하고 낙오된 자들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악의적인 활동이었습니다. 그것은 끔찍했습니다. 그것은 비탄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 군사적 만남의 밑바탕에는 초기의 적대감이 있습니다. 아말렉은 창세기 36장 12절의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우리는 야곱, 즉 이스라엘과 그의 형 에서 사이에 사랑이 거의 상실되지 않았음을 압니다. 어쨌든 사울은 여호와께 불순종하고 아각을 살려 두었습니다.

모르드개와 하만 사이의 대결은 예전의 민족적 긴장을 다시 불러일으켰고, 이번에는 하만이 권력을 잡는 명백한 불의로 끝났지만 모르드개는 인정받지 못한 채 남아 있었습니다. 하만이 유대인에 대해 표현한 적대감을 더욱 심화시키는 추가적인 성서적 연관성이 있습니다. 유대인을 진멸하고 죽이고 진멸하라는 조서를 내린 날은 첫째 달 13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유월절 전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첫째 달을 축제 행사로 축하하는 대신, 그 해의 마지막 달인 아달월 14일과 15일을 기념했습니다. 잔혹한 억압과

그에 따른 구출에 대한 공동의 기억은 그 사건과 그 사이에 이야기가 읽혀지는 동안 유대 공동체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원을 기념하는 이들은 한 해의 마지막 달인 아달월 14일과 15일로 정해졌습니다. 이 행사 역시 첫째 달인 니산월 14일과 15일에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과 평행하며, 둘 다 영원히 지켜야 했습니다. 이집트와 출애굽의 맥락과의 더 많은 연관성은 요셉 이야기와 에스더가 모르드개를 베는 이야기 사이의 유사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언어를 반영하는 것부터 표현된 광범위한 주제까지 다양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하나님의 임재는 침묵됩니다. 결국 그곳은 외국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내러티브의 스타일과 역사성을 가져다줍니다. 먼저 역사성을 다루겠습니다. 서사에는 날짜, 숫자, 이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있으며, 이는 적어도 역사로 읽혀지도록 의도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더욱이, 많은 세부 사항에서 에스더와 성경 외 자료 사이의 일치는 주목할 만하며, 이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페르시아의 관습, 문화, 언어, 궁중 예절을 그럴듯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점점 더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줄거리와 등장인물은 다른 방법으로는 입증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이 텍스트가 일종의 역사 소설로 의도된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세부사항에 관한 역사성 문제는 부적절하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그것이 실제로 역사적인 이야기라면, 그 표현의 진실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림절이 실제로 채택되어 열성적으로 실천되고 있다는 사실은 회의론자들에게 잠시 멈추게 해줄 것입니다. 기초가 완전히 조작된 것이라면 오히려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야기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매우 실제적인 재앙으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희망의 메시지는 심각하게 약화될 것입니다. 사실상 본문에 대한 모든 서론에서는 어떤 관점에서든 부정확하다고 주장되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문제 목록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때때로 문제를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왜 문제가 풀리지 않거나 이 문제가 빨간 청어로 간주되어야 하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정리합니다. 여기서 나의 의도는 단순히 주요 문제를 다시 조사하는 것입니다.

다리우스가 권력을 잡았을 때 동방 박사들을 타도하는 데 참여한 귀족들의 일곱 가문 중에서 여왕이 선택되어야 했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비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먼저 지적되었습니다. 우리는 헤로도토스 3권에서 이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헤로도토스의 기록은 크세르크세스보다 불과 한 세대 전에 일어난 공모자들 사이의 합의를 반영합니다.

이것은 오랜 전통이 아니었고, 사실은, 이것은 사이러스 자신의 대사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역사성에 대한 그다지 타당한 비판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더 어려운 점은 모르드개가 제국의 2인자라는 외부적 확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셉과의 유사점에 주목하십시오. 다리우스 통치 말기나 크세르크세스 통치 초기에 고위직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마르두카를 언급하는 페르시아 시대의 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설형 문자 문서가 있습니다. 1940년에 처음 출판되었고 이후 학자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언급된 이 책은 성서 본문이 실제로 대표하는 좋은 위치에 있는 모르드개에 대한 증거로 환영받았습니다.

불행하게도, 본문에 대한 최근의 평가에서는 이 본문의 Marduka가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두드러졌는지 여부와 그가 Xerxes 시대보다 오래 전인 502년 이후에 재직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Marduk 자신, 신들, 판테온의 종교적 중요성을 고려하면, 그 시대의 여러 개인 이름에 그 이름의 차이가 얽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어떤 식으로든 증거가 없습니다.

반면에 모르드개의 성서적 인물은 세속 역사의 페이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유대인을 결정짓는 유대인 배우와 사건이 무시되었던 수천 년의 역사 기록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와스디

정체성이다. 표면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가 왕좌에 오른 지 3년 후인 483년에 폐위될 때까지만 통치하는 여왕이었습니다.

헤로도투스가 480년 그리스 원정 이후 왕실 음모에 가담했다고 묘사한 악명 높은 크세르크세스의 아내 아메스트리스와 그녀의 관계가 우리의 질문입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단순히 헤로도토스의 왕족 여성 기록에서 에스더나 와스디 둘 다 표면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인데, 그 기록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아메스트리스는 훨씬 더 다채로운 인물이었다고 헤로도토스는 색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헤로도토스는 노년기에 아메스트리스가 저승의 신에게 감사의 제물로 바쳐 유명한 페르시아인의 아들 14명을 산채로 묻어 버렸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시 다루게 될 마시스테스의 아내에 대한 그녀의 잔인함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끔찍합니다. Amestris는 Xerxes가 암살된 후 그녀의 아들 Artaxerxes가 권력을 잡았을 때 여전히 살아 있고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나로스 한 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인 50명을 참수하고, 코스에서 아폴로니데스를 산 채로 매장하면서 잔인함에 대한 재주를 잃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즉, 그녀는 다채로운 인물이었다고 여전히 현장에 어느 정도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메스트리스와 와스디가 동일한 인물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두 명의 학자 Shay와 Wright가 이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루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이름은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전환할 때 매우 유동적입니다.

와스디라는 이름은 아메스트리스와 별로 비슷해 보이지 않지만, 페르시아 이름을 히브리어로 번역한 영어 버전을 나타냅니다. 헤로도토스가 그 페르시아 이름을 그리스어로 넣었을 때, 첫 번째 자음과 두 번째 자음 모두 그리스어에 해당하는 자음이 없었기 때문에 대체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이들은 두 사람이고 그 이름의 두 가지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게다가 아메스트리스는 크세르크세스의 아내였을 뿐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또한 앞서 언급한 중요한 일곱 귀족 중 한 명인 그의 지휘관 중 한 명인 Otannus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크세르크세스의 두 아들을 낳았고, 셋째, 셋째 아들인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첫째인 셋째 아들인 아르타크세르크세스는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해인 483년에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실질적으로 그녀가 크세르크세스의 침실에서 추방되고 왕위를 박탈당할 수는 있지만 추방에는 제한이 있었고 그녀를 광범위한 왕실에 유지해야 할 정당한 정치적 이유가 있음을 의미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려하고 싶은 세 번째 사항이 있습니다. 제1장의 사건 직후, 크세르크세스는 서부 전선에서 전쟁을 벌이러 떠났고 그 후 3년 동안 그곳에서 점령당했습니다.

크세르크세스가 와스디를 기억한 후로 시작하는 에스더 2장 1절은 이 시간의 흐름을 언급하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젊은 여성들을 대거 모으는 일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년의 준비 끝에 에스더가 처음으로 입성한 것은 왕 제7년, 즉 479년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헤로도토스는 크세르크세스와 그의 조카와의 관계에 대해 매우 복잡하고 다채로운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여주인의 질투, 앞서 언급한 마시스트의 아내인 가난한 젊은 여자의 어머니에 대한 그녀의 교활하고 잔혹한 복수.

끔찍한 장면이었습니다. Herodotus는 그것에 페이지를 보냅니다. 이러한 사건 이후 크세르크세스는 새로운 여왕을 맞이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와스디와 그녀가 행한 일을 기억하는 것은 그 기억이 그 사이 3년 동안 그녀의 활동을 포함한다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헤로도토스의 이야기에는 크세르크세스 통치 7년부터 12년까지 여주인이 여왕이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과장된 표현일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법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법학 개념에서 번거롭고 실제로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신이 변경할 수 없는 명령을 부여하고 왕이 법을 모방하는 신학적이고 정치적인 문화에 변경할 수 없는 왕의

단어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들. 페르시아의 정치신학은 신들을 모방한 왕의 말이 왕국을 통일한다는 뜻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은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변의 법칙을 우회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현상에 충분히 감명을 받아 다니엘서와 에스더서에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스더의 관점에서 특이한 측면인 본문과 역본을 조금 살펴봅니다. 에스더서 본문은 현존하는 두 가지 그리스어 번역판이 서로 상당히 다른 점과 히브리어 본문을 넘어서 장식되어 있다는 점에서 도전 과제를 제기합니다. 70인역에는 베타 본문 또는 B 본문이라고 불리는 그리스어 역본이 더 접근하기 쉽고 더 길다.

광범위하게 말하면, 이 책은 6개의 주요 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신의 이름을 지정하고, 그의 개입을 솔직하게 묘사하고, 모르드개가 꿈 목시적인 꿈을 보고하고, 궁극적으로 통역,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기도 삽입, 에스더가 왕과 함께 청중을 설명하는 것, 그리고 왕의 칙령의 본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추가의 결과로 요약에서 알 수 있듯이 에스더 대신 하나님과 모르드개가 본문의 중심에 등장하며 내러티브 구조는 상당히 다른 핵심 주제를 강조합니다. 또한 70인역의 서술에는 이러한 여섯 개의 개별 단위를 넘어서는 수정 사항이 있으며, 많은 수정 사항이 히브리어 본문의 명백한 모호성을 명확히 합니다.

알파 텍스트라고 불리는 두 번째 그리스어 텍스트는 눈에 띄게 짧습니다. 70인역을 특징짓는 여섯 개의 판이 있지만, 일단 이 판이 제거되면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법이 취소될 수 없음을 나타내는 어떤 표시도 없으며, 오히려 내러티브의 전개를 바꾸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하만이 죽자 모르드개는 그 칙령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왕은 모르드개에게 국정을 맡겼고, 여전히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유대인의 적들과 정당방위를 위해 살해한 유대인들 사이에는 더 이상 갈등이 없었습니다. 에스더서는 구약 히브리어 토라 외에 두 개의 타르굼, 아람어 번역본이 있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첫 번째 것은 히브리어 본문을 조심스럽게 재현하지만 문법적, 해석적 주석으로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자료를 삽입합니다.

최종 결과는 히브리어 텍스트보다 약 두 배 정도 깁니다. 두 번째 아람어 번역은 훨씬 더 확장되었는데, 이는 에스더 이야기의 인기와 이야기에 수반되는 창의적인 장식의 발전을 모두 반영합니다. 두 경우 모두 종교적 실천과 신앙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는 데 실질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텍스트의 장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합의가 부족합니다. 실제로 일부 학자들은 텍스트가 풍부한 문학적 특징을 드러내기 때문에 단일 라벨을 붙이는 것을 주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이야기의 결정적인 특징은 무능한 페르시아 궁정에 대한 흥겨운 풍자와 대량 학살에 대한 불길한 공포가 극명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머에는 개연성이 없고 과장이 얽혀 있다고 주장하는 이 텍스트는 종종 문학적 희극, 페르시아 궁정 장면의 풍자극, 패러디와 양가감정의 카니발풍 융합으로 불러왔습니다. 추가 제안은 역사 소설이나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맥락에서, 마지막에 입법 언어의 엄함이 축제 이데올로기라는 꼬리표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각 범주는 해당 작품이 주로 허구임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맥락을 놀랍게 표현한 점을 고려할 때 가장 좋은 라벨은 역사적 서사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전체적으로 읽고 구조로 전환하면 우리는 전반적인 교차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hiastic 구조의 외부 프레임은 Ahasuerus의 위대함과 마지막에 Ahasuerus와 Mordecai에 대한 알림으로 구성된 쌍의 잔치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장은 왕의 호화로운 잔치를 묘사합니다. 첫 번째는 군인과 귀족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수사 주민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에 맞춰 두루마리는 역시 술을 마시는 축제인 부림절을 두 번 기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는 아달월 14일이고 두 번째는 수사월 15일입니다. 교차점은 에스더의 두 개인 잔치 사이에 발생한 왕의 불면증(에스더 6장 1절)을 중심

전환점으로 삼습니다. 왕의 불면증과 그에 따른 크세르크세스와 하만 사이의 대화는 선하든 악하든 그 누구의 계획과 계획의 범위를 완전히 넘어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대한 놀라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사의 중심에 배치하는 것은 이를 미묘하게 강조하는 것이다. 교차점의 추가 쌍은 모르드개의 등장과 병행하여 하만의 등장입니다. 이방인으로서의 에스더의 정체성과 이방인들이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일치하는 한편, 모르드개와 에스더 사이의 운명적인 교환은 두 번째 잔치에서 에스더와 아하수에로 사이의 긴장된 교환과 평행을 이룹니다.

최근 논평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용어는 불변성(Peripity)인데, 이는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사건의 반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패턴화된 반복과 반전은 둘 다 내러티브를 발전시키고 그의 백성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재의 심오한 의미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미 언급한 에스더서 9장 1절에 그 원칙이 명시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는데, 그 원칙이 뒤집혔습니다.

반복은 반전을 위한 문체적 배경으로 대규모로 발생하지만, 이는 그 매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단어 쌍, 사건에 대한 반복된 표시, 일련의 진술 및 요청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이중어는 페르시아 궁정에 대한 설명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며, 궁정의 화려함을 전달하기 위해 특히 풍부하고 과도한 어휘가 특징입니다.

쌍이라는 단어는 존 레빈슨(John Levinson)이 부르는 것처럼 페르시아 관리를 대표하며 왕실 현장에 대한 유머러스한 풍자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두 쌍은 에스더에게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도록 왕이 초대하는 비평적 청원과 요청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에스더의 두 잔치에서 처음으로 에스더 5장에서 그리고 에스더 7장에서 다시 반복됩니다. 또한 이러한 언어적 쌍과 절기 쌍은 모두 푸림의 이틀간의 축하를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이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이, 아마도 끝에 있는 두 편지는 이중 증명에 대한 강조를 계속하고 있으며, 어디에나 있는 이중성은 디아스포라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항상 씨름해 왔던 이중 충성이라는 주제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지점에서 이는 문체적으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어디에나 존재하는 이 쌍은 세 쌍으로 대체되며, 특히 폭력을 승인하고 실행하는 맥락에서 가장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이 회복하고 쉬며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4중의 환희의 말을 이어갑니다.

독특하고 반복되는 쌍의 출현 외에도 비판적 맥락에서 수동 동사 형태가 너무 많습니다. 에스더의 초기 모습은 거의 전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묘사됩니다. 그녀는 유대 민족과 마찬가지로 더 큰 이름 없는 세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동일한 익명성은 에스더와 그녀의 젊은 여성들, 그리고 유대인들보다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의 법정 장면에서 널리 퍼져 있으며, 그러한 맥락에서 책임의 관료주의를 박탈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수동적 형태에서는 발생하는 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모호함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체적 장치에 내포된 마지막 요점으로서 우리의 이야기 목적 감각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름 없는 신성한 오케스트라에 대한 인정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